

『자본론』 제3권 -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제3권 제5편 이윤이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 분할. 이자냥는 자본

- 제3권 제5편은 ‘이자냥는 자본’을 다룬다. 이른바 ‘금융자본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자본론』에서 가장 “현대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맑스가 이 주제에 관해 남긴 방대한 분량의 초고는 제3권 전체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할 뿐 아니라 가장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엥겔스가 편집에 가장 애를 먹은 부분. 제3권 서문 참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과 금융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통찰과 함께 21세기 자본주의의 현란한 각종 현상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풍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제21장 이자냥는 자본

제22장 이윤의 분할. 이자율. ‘자연적’ 이자율

제23장 이자와 기업가이득

제24장 이자냥는 자본에서는 자본관계가 피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 제5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자’라는 범주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자는 우리가 제4편에서 다룬 상업이윤과 마찬가지로 이윤(잉여가치)의 파생적 형태이지만, 상업이윤과는 또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즉 상업이윤은 평균이윤율의 균등화에 참가하지만, 이자는 평균이윤율의 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기능자본가가 획득한 평균이윤의 일부로 나타나게 된다(제5편의 제목은 ‘이윤이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 분할’이다). 21~24장은 이러한 이자의 본질과 함께, 이러한 ‘분할’이 어떻게 자본가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스스로 자기증식하는 가치라는 자본의 속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착취한 잉여가치의 일부에 불과한 기업가이득을 마치 자기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제21장 이자냥는 자본

1. 제2편에서 ... 이윤율의 균등화는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 투하된 산업자본들 사이의 균등화로서만 나타났다. ... 제4편에서는 이 균등화에 상업자본이 참가 ... 하여 일반적 이윤율과 평균이윤은 이전보다 더욱 엄밀히 규정된 좁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 이 평균율은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에 대해 같다. ... 자본이 생산분야에 산업자본으로 투하되든 유통분야에 상업자본으로 투하되든, 그 자본은 자기의 크기에 비례해 동일한 연간 평균이윤을 얻는다. (p. 429)

2.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화폐는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전환에 의해 화폐는 주어진 고정적 가치에서 자기 자신을 증식시키고 증가시키는 가치로 된다. 화폐는 이윤을 생산한다. 즉 화폐는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자들로부터 일정한 양의 부불노동·잉여생산물·잉여가치를 착취하여 사유화할 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화폐는 화폐로서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 이외에 추가적인 사용가치, 즉 자본으로 기능한다는 사용가치를 얻게 된다. 이 경우 화폐의 사용가치는 그것이 자본으로 전환되어 생산하는 이윤 바로 그것에 있다. 잠재적 자본, 이윤을 생산하는 수단의 속성에서 화폐는 상품이, 그러나 특수한 종류의 상품이 된다. 또는 같은 이야기이지만, 자본으로서 자본이[[화폐가]] 상품이 된다. (pp. 429-30)

3. 이자는 이윤 중 기능자본가가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자본의 소유자에게 지불해야만 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특수한 명칭, 특수한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p. 431) ... 이자냥은 자본의 독특한 유통. ... 출발점은 A가 B에게 대부하는 화폐다. ... B의 수중에서 화폐는 현실적으로 자본으로 전환되어 M—C—M'의 운동을 통과하며, A에게로 M'으로서 ... 복귀한다. ... 운동은 다음과 같이 된다. M—M—C—M'—M' (p. 432) ... 자본으로서 화폐의 이중의 지출에 대해 화폐의 이중의 환류가 대응한다. (p. 433)

4. 생산당사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거래의 공정성은 이 거래가 생산관계의 자연적 귀결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법률적 형태들—이 형태에서는 이런 경제적 거래들은 참가자들의 자발적 행위로서, 그들의 공동의지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개개의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나타난다—은 단순한 형태들에 불과하며 거래의 내용 그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거래의 내용을 표현할 뿐이다. 그 내용이 생산양식에 알맞고 적합하다면 공정한 것이다. 생산양식과 모순한다면 그 내용은 불공정한 것이 된다. 노예를 부리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는 불공정하며, 상품의 품질을 속이는 것도 그러하다. (p. 431)

5. 이 상품[상품으로서 자본]에 고유한 대부라는 형태는, 자본이 여기에서 상품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또는 자본으로서 화폐가 상품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하는 것

이다. (p. 434) ... 화폐를 이자냥는 자본으로서 가치증식시키려는 화폐소유자는 그 화폐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유통에 투입하며 그것을 자본으로서 상품화한다. 그 화폐는 자기를 넘겨주는 사람에 대해서 자본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처음부터 자본으로서 넘겨지게 된다. 다시 말해 그 가치는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기간만 떠나는 것이며 오직 일시적으로 소유자의 점유로부터 기능자본가의 점유로 옮겨가는 것인데, 따라서 그 가치는 지불되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판매되어 버리는 것도 아니며 대부될 뿐이다. 즉 그 가치는, 첫째로 일정한 기간 뒤에는 출발점으로 복귀한다는 조건, 그리고 둘째로 실현된 자본으로서—그리하여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그것의 사용가치를 실현한 뒤에—복귀한다는 조건에서만 넘겨지는 것이다. (pp. 436-7)

6. 자본으로서 대부되는 상품은 그것의 속성에 따라 고정자본 또는 유동자본으로 대부된다. 화폐는 어느 형태로든 대부될 수 있다. ... 그러나 모든 대부자본은 [그것의 형태가 어떻든, 그리고 그것의 상환이 그 사용가치의 성질에 의해 어떻게 변경되든] 항상 화폐자본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대부되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화폐액이며, 이 화폐액에 근거하여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p. 437) ... 어느 경우에도나 환류방식은 자본이 재생산되는 현실적 순환운동과 자본의 특수한 종류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자본의 경우에는 그 환류가 상환의 형태를 취한다. (pp. 437-8)

7. 자본으로서 대부되는 화폐는 ... 자기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화폐액으로서 대부된다. ... 그 화폐액은 자본으로서 넘겨지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하나의 전체·총체로서 고찰하는 경우, 자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로서—즉 자본은 화폐에 대한 화폐로서—나타나게 되는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가 여기에서는 매개적인 중간운동 없이 단순히 화폐의 성질, 화폐의 능력으로서 화폐에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화폐가 화폐자본으로서 대부되는 경우, 화폐는 이런 능력 때문에 넘겨지는 것이다. (pp. 438-9)

8. 자본 일반의 특징적인 운동—즉 화폐가 자본가에게로 복귀하는 것, 자본이 그 출발점으로 복귀하는 것—이 이자냥는 자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루는 현실적인 운동과는 분리된] 전적으로 피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대부된 화폐가 자본으로서 현실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거래 바깥에 있는 활동이다. 이 거래 그것에는 자본의 현실적 운동이 소멸되어 눈에 보이지 않으며,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그리하여 이 거래에 관한 한, 자본의 환류는 생산과정에 의해 결정된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p. 443)

9. 자본으로서 화폐의 대부—일정한 기간 뒤에 상환된다는 조건으로 화폐를 양도하는 것—은 화폐가 실제로 자본으로 사용되어 실제로 그 출발점에 환류하는 것을 전

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화폐가 자본으로 행하는 현실적 순환운동은 화폐의 차입자가 대부자에게 화폐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상 거래의 전제다. (pp. 444-5) ... 화폐의 대부자는 화폐를 상품의 구매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며, 또는 가치액이 상품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상품을 화폐와 교환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 가치액을 자본으로서, $M-M'$ 으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출발점으로 복귀하는 가치로서 투하한다. 그는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부는 가치를 화폐나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으로서 넘겨주는 것에 적합한 형태다. (p. 445)

10. 화폐자본가가 대부기간에 차입자인 생산적 자본가에게 넘겨주고 건네주는 사용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어 자본으로 기능함으로써, 자기의 운동에서 자기의 최초 가치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일정한 잉여가치, 즉 평균이윤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화폐가 가지게 되는 사용가치다. ... 자본으로서 화폐의 이 사용가치를 화폐자본가는 일정한 기간 산업자본가에게 넘겨주며, 이 기간에는 대부자본의 처분권을 산업자본가에게 건네준다. (p. 447) ... 보통의 상품과는 달리 이 사용가치는 그 자체가 가치다. 화폐를 자본으로 사용하는 것에 의해 생기는 가치량이 화폐의 최초 가치량을 넘는 초과분, 즉 이윤이 그 사용가치다. (p. 448)

11. 그러면 산업자본가는 무엇을 지불하는가? 대부되는 자본의 가격은 무엇인가? (p. 448) ... 동일한 화폐액인 ((대부자와 차입자))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윤의 분할에 의해서다. 대부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이자라고 부른다. ... 이자를 화폐자본의 가격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가격의 불합리한 형태며 상품의 가격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모순된다. (p. 450) ... 이자가 자본의 가격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불합리한 표현이다. 이 경우 하나의 상품은 두 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첫째로는 가치를, 둘째로는 이 가치와 다른 가격[물론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에 불과하지만]을 가지게 된다. (pp. 450-1) ... 가격이 상품의 가치를 표현한다고 하면 이자는 화폐자본의 가치증식을 표현하며, 이리하여 그 화폐자본의 대가로 대부자에게 지불되는 가격으로 나타난다. (pp. 451-2)

12. 이윤이 이자와 진정한 이윤((기업가이득))으로 분할되는 것이, 상품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즉 경쟁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자본은 상품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차이점은 유사성만큼이나 뚜렷하다. 만약 공급과 수요가 일치한다면, 상품의 시장가격은 그것의 생산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즉 이때 상품의 가격이 경쟁과는 관계없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p. 453) ... 그러나 화폐자본에 대한 이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 경우 경쟁이 법칙으로부터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의해 강제되는 분할의 법칙 이외에는 어떤 법칙도 없다. ... 이자율에는 어떤 '자연적' 한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쟁이 오로지 차이들과 변동들을 결정하는 것뿐이 아닌 경우, 따라서 경쟁의 상호작용하는 힘들이 균형을 이루면 일체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결정되어야 할 것((이자율))은 그 자체 자의적이고 무원칙적인 것으로 된다. (pp. 453-4)

13. 이자냥는 자본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피상적으로 나타난다.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내재하는 다음과 같은 속성—즉 이윤율은 1회전에서 얻는 이윤과 투하자본 가치 사이의 비율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회전시간 그것의 길이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따라서 산업자본이 일정한 기간에 생산하는 이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도 매우 피상적으로 나타난다. 이자냥는 자본의 경우 ... 에서는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이자가 대부자에게 지불된다는 형태로 나타난다. (p. 454)

제22장 이윤의 분할. 이자율. '자연적' 이자율

14. 이자는 이윤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 이자가 실제로 이윤보다 커서 이윤에서 지불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들을 무시한다면, 이자의 최댓값은 이윤 전체 중에서 '감독임금'으로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을 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p. 456) ... 이미 본 바와 같이, 이윤율의 수준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자율의 높고 낮음이 이윤율의 현실적 높고 낮음을 표현하는 한, 한 나라의 이자율의 높고 낮음은 산업발달의 수준에 반비례하게 된다. ... 이런 의미에서 이자는 이윤에 의해, 더 엄밀하게는 일반적 이윤율에 의해 규제된다. 그리고 이런 규제는 이자의 평균수준에도 적용된다. (p. 458)

15. 평균이윤율은 궁극적으로 이자의 최댓값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 이윤과 같은 하나의 주어진 전체가 두 개로 분할되는 경우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분할되어야 할 전체의 크기인데, 이것은 평균이윤율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 이윤율이 주어진다면 이자는 차입자본으로 활동하는 기능자본가의 손에 남은 이윤부분에 반비례해 변동한다. 분할되어야 할 이윤의 크기를 규정하는 사정들은, 이 두 종류의 자본가들 사이에서 이윤의 분할을 규정하는 사정들과는 매우 다르며 이따금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p. 458)

16. 근대적 산업이 통과하고 있는 회전순환을 고찰하면, 낮은 수준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번영기나 특별히 이윤이 높은 시기에 대응하고, 이자의 상승은 번영과 이것의 붕괴 사이에 나타나며, 이자가 극단적인 고리대의 수준까지 최고한도에 도달하는 것은 공황의 시기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낮은 이자가 침체와 병행할 수도 있고 이자의 적당한 상승이 회복과 병행할 수도 있다. 이자율은 지불

하기 위해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화폐를 차입해야 하는 공황 중에 그 최고수준에 도달한다. 이자의 상승에 대응해 유가증권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공황기는 이용가능한 화폐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헐값으로 이자냥는 증권들을 구입할 절호의 기회를 또한 제공한다. (pp. 459-60)

17. 이윤율의 변동과는 전혀 독립적으로 이자율이 저하하는 경향도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주요한 이유 때문이다. (1) “... 오래되고 부유한 나라에서는 스스로 자본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양이 그 사회의 생산적 자본의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새로 정착하고 빈곤한 지역들에서보다 높다. ... 금리생활자계급이 증대함에 따라 자본의 대부자계급도 증가한다.” ... (2) 신용제도가 발달하는 것. 이에 따라 산업가와 상인이 은행업자를 매개로 사회의 모든 계급의 화폐적 저축을 점점 더 지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런 저축들이 화폐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점점 더 대규모로 집적되어 가는 것. (pp. 460-1)

18. 한 나라에서 지배적인 평균이자율은 어떤 법칙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은 자연적 이윤율 또는 자연적 임금률과 같은 의미의 자연적 이자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p. 461) ... 평균이자율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는 공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기타의 경우들에서 ... 이 공식은 경쟁과는 독립적인 기본법칙들, 오히려 경쟁을 규정하는 기본법칙들을 발견하기 위한 공식으로 기능한다. ... 그런데 평균이자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여기에서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경쟁 그 자체인 경우에는, 그 결정은 본래 우연적이며 순전히 경험적일 수밖에 없으며, 오직 현학자나 망상가만이 이 우연적인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p. 462)

19. 왜 평균이자율의 한계가 일반적인 법칙에서 도출될 수 없는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이자의 성질에서 찾을 수 있다. 이자는 평균이윤의 일부일 뿐이다. 동일한 자본이 이중의 자격으로 나타난다. 즉 대부자의 수중에서는 대부자본으로 나타나고, 기능자본가의 수중에서는 산업자본 또는 상업자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자본은 오직 한 번만 기능하며 오직 한 번만 이윤을 생산한다. 생산과정 그것에서는 대부자본으로서 자본의 성격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다. 이 이윤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두 당사자가 이 이윤을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할하는가는 그 자체로서는 순전히 경험적인 사실이며 우연의 영역에 속한다. (pp. 463-4)

20. 잉여가치와 임금 사이의 분할—이자율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이것에 달려 있다—의 경우에는 노동력과 자본이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이 두 개의 독립변수들의 함수가 잉여가치와 임금 상호간에 한계를 설정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노동력과 자본이라는 질적인 구별에서 생산된 가치의 양적 분할이 생긴

다. ... 잉여가치가 지대와 이윤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일이 생긴다. 그러나 이자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 여기에서는 거꾸로 동일한 잉여가치의 순전히 양적인 분할에서 질적인 구별이 생기고 있다. (p. 464)

21. '자연적' 이자율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나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이자율과 구별되는 평균이자율[또는 중간이자율]은 일반적 법칙에 의해 그 한계가 확정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자율은—평균이자율이든 그 당시의 시장이자율이든—일반적 이윤율과는 전혀 달리 하나의 균일한 확정된 명확한 크기로서 나타난다. (p. 464)

22. 이자율과 이윤율 사이의 관계는, 상품의 시장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자율이 이윤율에 의해 결정되는 한, 이것은 항상 일반적 이윤율을 통해서이다. ...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 이윤율은 경험적인 주어진 사실로서 평균이자율에 다시 나타나는 셈이다—비록 평균이자율이 일반적 이윤율의 순수한 또는 믿을 만한 표현은 아니라 하더라도. (p. 465) ... 평균이자율은 어느 나라에서나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보면 불변의 크기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일반적 이윤율은 특수한 이윤율들의 끊임없는 변동에도 불구하고 ... 장기에 걸쳐서만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 이윤율의 상대적 불변성은 바로 평균적[또는 보통의] 이자율의 이런 대체로 불변적인 성격에 반영되고 있다. (p. 466)

23.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이자율...은 상품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어느 주어진 순간에는 고정된 크기다. 왜냐하면 화폐시장에서는 모든 대부가능한 자본이 항상 총량으로서 기능자본과 대립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편에서는 대부자본의 공급과 다른 한편에서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 사이의 관계가 어느 주어진 시간의 시장이자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 이윤율은 언제나 하나의 경향으로서만, 각종의 특수한 이윤율들 사이의 균등화의 운동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p. 466) ... 일반적 이윤율의 경우에는 각각의 다른 분야들에 대한 자본의 진입과 철수가 끊임없이 변동할 뿐이지, 이자율의 결정에서와 같은 자본총량의 동시적인 작용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p. 467)

24. 일반적 이윤율은 시장이자율—이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직접적으로 아무런 매개 없이 결정된다—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결정되며,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은 시장이자율처럼 쉽사리 알 수 있는 주어진 사실이 아니다. ... 평균이윤은 직접적으로 주어진 사실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경향들이 균등화하는 최종결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자율은 그렇지 않다. 이자율은 적어도 어느 지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는 매일 확정되고,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에 대해서는 그들의 활동 계산에서 전제와 요소로까지 가능하다. (p. 468)

25. 화폐시장에서는 대부자와 차입자가 서로 상대할 뿐이다. 상품은 화폐라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본이 특수한 생산분야나 유통분야에 투하되기 때문에 취하게 되는 모든 특수한 형태들이 소멸되어 있다. 자본은 여기에서는 독립된 가치인 화폐라는 무차별적인 동질의 형태로 존재한다. 특수한 분야들 사이의 경쟁은 여기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분야들은 화폐의 차입자로 일괄되어 있으며, 자본은 그 모든 분야들을 상대할 때 자본 사용의 특수한 방식·방법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자본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현실적으로 계급의 공동자본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p. 469)

26. 화폐시장의 화폐자본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즉 그것의 특수한 사용 방식과는 전혀 관계없이 각 분야의 생산상의 필요에 따라 각종 분야들 사이에, 자본가계급 사이에 하나의 공동요소로서 분배된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대공업의 발달에 따라 화폐자본은 개별자본가(즉 시장에 있는 자본량의 이리저리러한 부분의 소유자)에 의해 대표되는 것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생산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을 대표하는 은행업자의 통제 아래에 있는 집중되고 조직된 덩어리로 등장한다. 그리하여 수요의 형태에서는 한 계급 전체가 대부를 위한 자본과 상대하고 있는 반면, 공급에서는 그 자본은 한 덩어리의 대부자본으로서 나타난다. (p. 469)

제23장 이자와 기업가이득

27. 이자는 ... 이윤(즉 잉여가치) 중 기능자본가인 산업가 또는 상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자본이 자기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인 한] 그 자본의 소유자이며 대부자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하는 부분에 불과하다. (p. 471) ... 사실상 자본가가 화폐자본가와 산업자본가로 분리되는 것에 의해서만 이윤의 일부가 이자로 전환되며 이자라는 범주가 창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만 이자율이 창조되는 것이다. (p. 472)

28. 이윤이 순이윤과 이자로 완전히 양적으로 분할되는 것이 어떻게 질적인 분할로 전환되는가? 바꾸어 말해, 차입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자본만을 사용하는 자본가도 자기의 총이윤의 일부를 이자라는 특수한 범주에 넣어 이자로 따로 계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더욱이 모든 자본—차입된 것이든 아니든—이 이자 낚는 자본으로서, 순이윤을 가져오는 자본으로서의 자기 자신과 구별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 화폐자본가와 산업자본가는 법률상으로 독립된 인격들일뿐 아니라 재생산과정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인격들로서, 또는 그들의 수중에서 동일한 자본이 실제로 이중의 전혀 다른 운동을 하게 되는 인격들로서 현실적으로 마주하

게 된다. (p. 474) ... 차입자본으로 사업하는 생산적 자본가에게는 총이윤은 두 부분으로, 즉 그가 대부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이윤 중 이자를 넘은 초과분으로 자기 자신의 몫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분할된다. (p. 475)

29. 자본의 진정한 특징적인 생산물은 잉여가치며, 좀 더 나아가서 규정한다면 이윤이다. 그런데 차입자본으로 사업하는 자본가가 얻는 것은 이윤이 아니라 이윤에서 이자를 뺀 것—즉 이자를 지불한 뒤 자기 손에 남는 이윤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이윤부분이 필연적으로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자본의 생산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 관한 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기능자본으로서 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 이리하여 총이윤 중 [대부자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이자에 대립해] 기능자본가에게 귀속되는 나머지 이윤부분은 필연적으로 산업이윤 또는 상업이윤의 형태—이 두 개를 포괄하는 독일어 표현인 기업가이득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p. 475)

30. 여기에서는 총이윤의 양적 분할이 질적 분할로 전환되고 있다. 더욱이 이 양적 분할 그것, 무엇이 분할되어야 하는가, 능동적인 자본가가 어떻게 그 자본을 활용하는가, 그리고 그 자본이 기능자본으로서—즉 능동적 자본가인 그의 기능의 결과로서—그에게 얼마나 큰 총이윤을 가져오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양적 분할은 점점 더 질적 분할로 전환된다. ... 자본의 소유는 기능자본가에 대립해 대부자인 화폐자본가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능자본가가 대부자에게 지불하는 이자는 총이윤 중 자본의 소유 그것에 돌아가는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총이윤 중 능동적인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그가 재생산과정에서 그 자본을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 또는 기능—특히 그가 산업이나 상업에서 기업가로서 수행하는 기능—에서 전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기업가이득으로서 나타난다. (p. 476)

31.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능자본가 측에서 보면, 이자는 자본소유의 단순한 과실로서, 즉 '일하지' 않고 기능하지 않는, 자본의 재생산과정과는 분리된 자본 그것의 단순한 과실로서 나타나는 반면, 기업가이득은 전적으로 그가 자본을 가지고 수행하는 기능의 과실로서, 자본의 운동과 기능의 과실로서 나타난다. (pp. 476-7) ... 이리하여 동일한 자본에 대해 그리고 이 자본이 생산하는 이윤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상의 청구권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총이윤이 단순히 양적으로 분할되던 것이, 차입자본으로 사업하는 산업자본가와 자기의 자본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화폐자본가에 대해 총이윤이 질적으로 분할된다. 이제 이윤의 한쪽 부분은 하나의 자격에서 자본 그것에 속하는 과실로서, 이자로서 나타나고, 이윤의 다른 쪽 부분은 반대의 자격에서 자본의 독특한 과실로서, 기업가이득으로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전자는 자본소유의 단순한 과실로서 나타나고, 후자는 자본을 가지고 단순히 기능하는

것의 과실로서, 과정 중의 자본으로서 자본의 과실, 또는 능동적 자본가가 수행하는 기능의 과실로서 나타난다. (p. 477)

32. 그리고 총이윤의 두 부분들이 마치 두 개의 본질적으로 다른 원천에서 생기는 것처럼 상호간에 자립해 화석화되는 것은, 이제는 자본가계급 전체와 자본 전체에게도 확립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이런 질적 분할은, 능동적 자본가가 사용하는 자본이 차입된 것이든 아니든, 자본을 소유하는 화폐자본가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 사용하든 않든,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어떤 자본의 이윤도 그리고 자본들 사이의 균등화에 근거한 평균이윤도 두 개의 질적으로 다른, 상호간에 자립적이고 의존하지 않는 부분들로 분할된다. 자기자본으로 사업하는 자본가도, 차입자본으로 사업하는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총이윤을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 분할한다. (pp. 477-8) ... 자본의 사용자는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두 개의 인격으로—즉 자본의 단순한 소유자와 자본의 사용자로—분열된다. 그의 자본 그것은, ... 그 자체로서 이자를 낳는 자본소유[생산과정 밖에 있는 자본]와 생산과정 안에 있는 자본[과정 중의 자본으로서 기업가이득을 낳는 자본]으로 분열된다. (p. 478)

33. 단순히 총이윤의 일부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자로서 화석화하고 자립하는가. ...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것에 대응하는 자본이나 이윤의 관념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자낳는 자본은 전해 내려온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자도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통속적인 관념에서는 화폐자본 또는 이자낳는 자본은 여전히 자본 그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자본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 이자가 지불되는 것은 화폐 그것에 대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게 된다. 대부자본은 실제로 자본으로 사용되든 않든 [오직 소비를 위해 차입되는 경우에도] 이자를 낳는다는 사정은, 이 자본형태가 독립적이라는 관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초기에는 이자가 이윤에 대해 그리고 이자낳는 자본이 산업자본에 대해 독립성을 띠고 나타난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이자가 총이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18세기 중엽에 비로소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진정 그런 발견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이다. (pp. 479-80)

34. 이자는 이제 산업자본가가 타인의 자본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만 생기는, 생산과는 관계없는 총이윤의 분할로 나타나지 않는다. (p. 478) ... 질적으로 보면, 이자는 자본의 단순한 소유가 제공하는 잉여가치, 자본의 소유자는 재생산과정의 외부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자본이 스스로 낳는 잉여가치며, 따라서 자본의 재생산과정과 분리된 채 낳는 잉여가치다. 양적으로 보면, 이윤 중 이자를 구성하는 부분은 산업자본·상업자본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잉여가치의 이 부분의 비율—즉 이자율—은 이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자율은 일반적 이윤율에 의존하는데도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둘째로 이자율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윤율과는 반대로, 그리고 상품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동에도 확정된 · 명백한 · 항상 주어진 크기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p. 480) ... 어떤 경우에도 산업자본가에게는 총이윤 중 이자와 구별되는 부분은 기업가이득으로 나타나며, 이자 그것은 자본 그 자체가 낳는 잉여가치, 따라서 자본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낳게 될 잉여가치로서 나타난다. (pp. 480-1)

35. 개별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실제로 옳다. 그는 자기의 자본을 이자낳는 자본으로 대부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생산적 자본으로 증식시킬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 이것을 사회적 총자본에 적용시키는 것—몇몇의 속류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이 이윤의 근거로서 제시되기도 한다—은 물론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생산수단들을 구매해 가치증식시키는 사람들이 없이, 총자본이 화폐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다. 그러나 이런 관념 속에 숨어있는 더욱 큰 어리석은 생각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 자본은 생산적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아도 [즉 이자가 다만 그 일부에 불과한 잉여가치를 창조하지 않아도] 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자본주의적 생산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p. 481)

36. 개별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의 취득과 기업가이득의 취득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개별자본가는 필연적으로,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의 평균이윤 중 평균이자와 동등한 부분을—생산과정을 무시한 채—자기자본 그것의 과실로서 여기게 되며, 그리고 이자로서 독립된 이 부분과 대립시켜 총이윤 중 이 부분을 넘는 초과분을 단순히 기업가이득으로 여기게 된다. (pp. 481-2) ... 이윤 중 기능자본가가 차입자본의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부분은 모든 자본[차입된 것이든 아니든]이 자본으로서 창조한 이윤 중 이자라는 이름으로 낳는 한 부분의 독립된 형태로 전환한다. ... 다시 말해 이윤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상의 청구권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이윤이 순전히 양적으로 분할되는 것이, 자본과 이윤 그것의 성질로부터 유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적 분할로 전환되어버린 것이다. (p. 482)

37. 이 두 형태—이자와 기업가이득—는 오직 대립물로서 존재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범주 · 항목 · 명칭에 따라 구분된] 잉여가치의 부분들인데도 잉여가치와 관련을 맺지 않고 상호간에 관련을 맺고 있다. 이윤의 한 부분이 이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기업가이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p. 482) ... 이자는 ... 재생산과정의 외부에 있는 단순한 대부자를 위해서든 자기자본을 스스로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소유자를 위해서든, 자본소유 그것이 낳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자기자본을 사용하는 자본가를 위해 자본소유가 이 순이윤((이자))을 낳는 것은, 그가 기능

자본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화폐자본가—즉 자기자본을 이자냥는 자본으로 기능자본가인 자기 자신에게 대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p. 483)

38. 이자라는 형태에서는 임금노동에 대한 ... 대립은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자냥는 자본 그것이 자기의 대립물로 삼고 있는 것은 임금노동이 아니라 기능하는 자본이기 때문이다. 대부자본가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사람은, 재생산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자본가이며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자냥는 자본은, 기능으로서의 자본에 대립하는 소유로서의 자본이다. 그러나 자본은 기능하지 않는 한,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으며 노동과 대립하지도 않는다. (p. 483)

39. 그런데 기업가이득은 임금노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대립한다. 첫째로, 평균이윤이 주어져 있으면 기업가이득률은 임금이 아니라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 둘째로, 기능자본가는 기업가이득에 대한 자기의 청구권을, 따라서 기업가이득 그것을 자기의 자본소유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기능—이것은 자본이 비활동적인 재산으로서만 존재하는 경우의 자격과 대립한다—에서 끌어낸다. ... 기업가이득은 재생산과정에서 자본의 기능에서, 즉 기능자본가가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의 이런 기능들을 매개하는 작업과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다. (pp. 483-4)

40.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자본가는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지휘한다. 생산적 노동의 착취는, 자본가가 스스로 하든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시키든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기업가이득은, 이자와는 달리 자본소유와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그리고 비소유자로서—노동자로서—자기 기능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리하여 그의 머릿속에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념이 생긴다. 즉 그의 기업가이득은—임금노동과 대립하기는커녕 그리고 타인의 부불노동에 불과한 것이기는커녕—오히려 그 자체가 임금이며 ‘감독임금’이고 보통 노동자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이라는 것이다. 높은 이유는 (1) 그의 노동이 복잡노동이기 때문이며, (2) 그가 자기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 484)

41. 자본가로서 그의 기능은 잉여가치—즉 부불노동—를 가장 경제적인 조건에서 생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자본가가 자본가로서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한 자본소유자인 경우에도 이자가 그에게 돌아가는 반면, 기능자본가가 자기의 기능에 기여하는 자본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가이득이 그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정반대되는 사실 때문이다. 이윤(따라서 잉여가치)이 분할되는 이 두 부분들이 정반대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잉여가치의 부분들에 불과하다는 것과, 이런 분할은 결코 잉여가치의 성질·기원·존재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이 망각되고 있다. (pp. 484-5)

42. 재생산과정에서 기능자본가는 임금노동자에 대해 타인의 소유인 자본을 대표하며, 화폐자본가는 기능자본가에 의해 대표되는 사람으로서 노동의 착취에 참가한다. 능동적 자본가는 노동자에 대립하는 생산수단의 대표자로서만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재생산과정 안에서의 자본기능과 재생산과정 밖에서의 단순한 자본소유 사이의 대립 때문에 망각되고 있다. (p. 485)

43. 사실상 이윤(또는 잉여가치)의 두 부분들이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서 취하는 형태는 노동과의 어떤 관련도 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과의 관련은 노동과 이윤 또는 [이자와 기업가이득의 합계 · 전체 · 통일인] 잉여가치 사이에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윤이 분할되는 비율, 그리고 이 분할의 기준이 되는 서로 다른 청구권은 이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이리하여 두 종류의 자본가들 사이에 이윤이 분할되는 이유가, 분할되어야 할 이윤 또는 잉여가치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로 둔갑하고 있다. (p. 485)

44. 이자냥는 자본이 이자냥는 자본인 것을 실증하는 것은, 대부되는 화폐가 현실적으로 자본으로 전환되어 초과분(이것의 일부가 이자이다)이 생산되는 한에서다. 그러나 이것은 이자냥는 자본이 생산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이자를 낚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 자본의 차입자가 자본을 자본으로 사용하는가 않는가—즉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의 고유한 속성을 현실적으로 발휘시키는가 않는가—는 차입자에게 달려 있다. 어느 경우에도 그가 지불하는 것은 자본이라는 상품에 가능성으로 고유하게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에 대해서다. (p. 486)

45.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자본의 특수한 사회적 속성—자본소유는 타인노동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이 확립되고, 이에 따라 이자는 이런 상호관련 속에서 자본이 낚는 잉여가치의 일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잉여가치의 다른 부분인 기업가이득은 필연적으로 자본으로서 자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특수한 사회적 속성—이것은 이미 자본에 대한 이자라는 형태로 특별한 존재방식을 얻고 있다—과는 분리된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 (p. 487)

46. 이자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건들이 자본으로 존재한다는 것, 즉 그것들이 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립하며, 그것들이 노동에 대립해 노동을 지배하는 개인적 힘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자는 [타인노동의 생산물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서] 단순한 자본소유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는 이런 자본의 성격을, 생산과정 밖에서 자본이 가지는 어떤 성격, 그리고 이 생산과정 그것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규정성의 결과가 결코 아닌 어떤 성격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이자는 자본의 성격을 노동과의 직접적인 대립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노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본가와 자본가 사이의 관계로서만 표현하고 있다. 즉 자본과

노동 사이의 현실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외적이고 아무래도 좋은 규정으로서 자본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자[자본의 대립적인 성격이 하나의 독립적인 표현을 얻고 있는 특수한 이윤형태]에서는 이 대립이 완전히 제거되고 있다. 이자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두 자본가들 사이의 관계다. (p. 487)

47. 다른 한편으로, 이자형태는 이윤의 다른 부분에 대해 기업가이득, 더 나아가서는 감독임금이라는 질적인 형태를 준다. 자본가가 자본가로서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기능들, 그리고 노동자와 구별되고 노동자와 대립하는 사람으로서 자본가에게 속하는 특수한 기능들이 단순한 노동기능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가 잉여가치를 얻는 것은, 그가 자본가로서 노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라는 그의 자격은 빼놓고 그도 역시 노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잉여가치의 이 부분은 결코 잉여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자기가 수행한 노동의 등가물로 되어 버린다. 자본의 소외된 성격—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립—은 현실적 착취과정의 외부로, 즉 이자냥는 자본에게로 옮겨지므로, 이 착취과정 그것은 단순한 노동과정으로서 나타날 뿐이며, 여기에서는 기능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과는 다른 노동을 수행할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착취하는 노동과 착취되는 노동이 모두 노동으로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pp. 487-9)

48. 이리하여 자본의 사회적 형태는 이자에 맡겨지면서 중립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형태로 표현되는 한편, 자본의 경제적 기능은 기업가이득에게 맡겨지면서 이 기능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성격이 제거된다. 여기에서도 자본가의 의식 속에는, 평균이윤으로의 균등화와 관련해 제2편에서 논의된 보상 근거의 경우와 같은 것이 생긴다. 잉여가치의 분할을 결정하게 되는 보상 근거들은 자본가의 사고방식에서 왜곡되어 이윤 그것의 발생과 (주관적인) 정당화의 근거로 전환되고 있다. (p. 488)

49. 기업가이득이 감독노동에 대한 임금이라는 관념은 ...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더욱 큰 근거를 갖게 된다. 즉 이윤의 일부는 사실상 임금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분리될 수 있다는 점, 또는 거꾸로 임금의 일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이윤의 불가결한 구성부분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부분은 ... 그 규모 따위로 말미암아 분업이 충분히 발달한 사업부문들이 경영자에게 주는 특별한 임금에서 그 순수한 형태를 드러내는데, 경영자의 임금은 이윤(=이자+기업가이득)이나 기업가이득(=이윤-이자)과는 독립적이며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p. 489)

50. 감독과 관리노동은 직접적 생산과정이 독립적인 생산자들의 고립된 노동의 형태가 아니라 결합된 사회적 과정의 형태를 취하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생긴다. 그러나 그 노동은 이중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에서는, 다수의 개인들이 협력하는 모든 노동에서는 과정의 상호관련과 통일은 필연적으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마찬가지로

지로 하나의 지휘 의지에, 그리고 부분노동이 아니라 작업장의 전체 활동을 담당하는 기능들에 맡겨진다. 이것은 어떤 결합된 생산방식에서도 수행되어야만 하는 생산적 노동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업부문을 무시하면, 이런 감독노동은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 사이의 대립에 바탕을 두는 모든 생산양식에서는 필연적으로 생긴다. 이 대립이 크면 클수록 감독노동의 기능은 그만큼 더욱 커진다. (p. 489)

51. 감독노동은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도 필수불가결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생산과정은 동시에 자본가에 의한 노동력의 소비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전제국가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감독과 전면적 개입이라는 노동이 두 개의 측면—모든 공동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공동사업의 수행과, 정부와 민중 사이의 대립에서 생기는 특수한 기능의 수행—을 포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예제도 아래에 있었던 고대 저술가들의 경우에는 감독노동의 이 두 측면들이 (실제로도 그러하였지만) 이론에서도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절대적 생산양식으로 여기는 근대경제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으로, ... 근대적 노예제도의 변호론자들은 감독노동을 노예제도의 정당화 근거로 이용할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감독노동을 임금노동제도의 정당화 근거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pp. 489-90)

52. 이런 관리·감독노동이 모든 결합된 사회적 노동의 성질에서 생기는 특수한 기능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단순한 노동력의 소유자 사이의 대립에서 생기는 한, 직접적 생산자의 예속에서 생기는 이런 기능이 때때로 이 관계 그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되며, 그리고 또한 타인의 부분노동의 착취와 취득이 때때로 자본소유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설명되고 있다. (p. 491) ... 임금노동자도 노예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노동시키고 관리할 주인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일단 이런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전제된다면, 임금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임금 이외에도 감독 임금[자기를 지배하고 감독하는 노동에 대한 보상], 또는 “그를 관리하며 그들 그 자신과 사회에 유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투하된 노동과 재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만들어내도록 강요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된다. (p. 492)

53. 감독·관리노동이 자본의 대립적 성격[자본의 노동 지배]에서 생기며 따라서 계급대립에 근거하는 모든 생산양식(자본주의적 생산양식도 포함)에 공통적인 한, 그 노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생산적 기능들[모든 결합된 사회적 노동이 특수한 개인들에게 특수한 노동으로서 부과하는 생산적 기능들]과 직접적으로 뗄 수 없이 혼합된다. 관리인의 임금은, 이런 관리인에게 지불할 만큼 사업이 충분히 대규모로 운영되자마자 이윤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숙련노동에 대한 임금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p. 492)

54. 자본주의적 생산 그것은 감독노동을 자본소유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언제나 이용가능하게끔 만들었다. 따라서 감독노동을 자본가가 수행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 협동조합 공장은 자본가가 생산의 기능자로서는 불필요하게 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가 자신이 ... 대토지소유자를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자본가의 노동이 ... 사회적 노동이라는 노동형태에서 생기며 공동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다수인의 결합과 협업에서 생기는 한, 자본가의 노동은 자본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이 노동형태 그것이 자본주의적 껍질을 벗어버리자마자 자본과 관계없는 것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노동은 자본주의적 노동으로 필연적으로 자본가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속물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태내에서 발전한 형태들을 그것들의 대립적인 자본주의적 성격에서 분리하고 해방시켜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 (p. 493)

55. 관리임금은 상업관리인의 경우나 산업관리인의 경우나 모두 기업가이득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공장이나 자본주의적 주식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 협동조합 공장에서는 감독노동의 대립적 성격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관리인은 노동자들에 의해 지불되며, 노동자들에 대립해 자본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일반[신용제도와 함께 발달한다]은 기능으로서 이 관리노동을 점점 더 자본소유[자기자본이든 차입자본이든]에서 분리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능자본가가 자본의 단순한 소유자인 화폐자본가와 대립하고, 그리고 신용의 발달과 더불어 이 화폐자본 그것이 은행에 집중되어 은행에 의해—화폐자본의 직접적 소유자에 의해서가 아니라—대출되어 사회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단순한 관리인—대부에 의해서든 다른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자본소유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관리인—이 기능자본가 그것에 속하는 모든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오직 기능자만이 남게 되고, 자본가는 불필요한 인물로서 생산과정에서 사라진다. (pp. 494-5)

56. 기업가이득과 감독임금 또는 관리임금 사이의 혼동은 처음에는 이윤 중 이자를 넘는 초과분이 이자에 대해 취하는 대립적인 형태 때문에 생겼다. 이 혼동은, 이윤을 잉여가치(즉 부불노동)로서가 아니라 자본가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서 설명하려는 변호론적 의도에 의해 더욱 전개되었다. (pp. 495-6) ... ((그러나)) 한편에서는 다수의 산업경영자와 상업경영자층이 형성됨에 따라 감독임금도 모든 기타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일정한 수준과 일정한 시장가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특수훈련을 받는 노동력의 생산비를 저하시키는 전반적인 발달에 따라 감독임금도 숙련노동 일반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저하하였다. 노동자 측에서 협동조합의 발달, 그리고 자본가 측에서 주식회사의 발달에 따라, 기업가이득과 관리임금을 혼동시키는 최후의 구실마저 유지될 수 없게 되

였으며, 이윤은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던 것, 즉 단순한 잉여가치—아무런 등가도 지불되지 않은 가치, 실현된 부분노동—로 실제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기능자본가는 현실적으로 노동을 착취하며, 그의 착취의 과실은, 그가 차입자본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 분할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p. 496)

57.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주식회사와 관련해 관리임금에 대한 새로운 사기가 전개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관리인의 상부에 다수의 이사진과 감사진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관리와 감독은 사실상 주주들을 약탈해 치부하는 단순한 구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이런 회사의 중역이 매주 회의에 참석해 받는 보수...감독임금은 대체로 이런 명목상의 중역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감독에 반비례하고 있다. (p. 497)

제24장 이자냥는 자본에서는 자본관계가 피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58. 이자냥는 자본에서 자본관계는 가장 피상적이고 물신적인 형태에 도달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M-M'$ 을 가지게 되는데, 더 많은 화폐를 낳는 화폐—자기 자신을 증식시키는 가치—가 두 끝을 매개하는 과정 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업자본 $M-C-M'$ 에서는 적어도 자본운동의 일반적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비록 이 운동은 유통영역에서만 행해지...지만, 그러나 이윤은 적어도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표시되어 있지, 단순한 사물의 산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상업자본의 형태는 적어도 하나의 과정을, 두 대립국면의 통일을, 하나의 운동(이 운동은 상품의 구매와 판매라는 두 개의 반대되는 절차로 분할된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자냥는 자본의 형태인 $M-M'$ 에서는 사라지고 있다. (p. 498)

59. $M-M'$ 이 공식은 무의미할 정도로 생략되어 버린 자본의 시초의 일반공식이다. 완성된 형태의 자본은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통일이며, 따라서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잉여가치를 낳는 자본이다. 이자냥는 자본의 형태에서는 이런 형태가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자본은 이자[즉 자기 자신의 증가]의 신비스러운 그리고 자기창조적인 원천으로서 나타난다. 사물(화폐·상품·가치)은 이제 단순한 사물로서 이미 자본이며, 자본은 단순한 사물로서 나타난다. 총재생산과정의 결과가 사물 그것에 내재하는 속성으로서 나타난다. ... 그러므로 이자냥는 자본에서는 이 자동적인 물신이 순수한 형태—즉 자기 자신을 증식시키는 가치, 화폐를 낳는 화폐—로 완성되며, 이 형태에서 자본은 더 이상 자기가 생긴 흔적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가 하나의 사물—즉 화폐—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로 완성되고 있다. (p. 499)

60. 화폐 그것은 이미 잠재적으로 자기증식하는 가치이며 그리고 이런 것으로서 대부분이다. 이리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자를 낳는 것은 전적으로 화폐의 속성으로 되어버린다. ... 그것뿐이 아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자본도 기능자본으로서 이자를 낳는 것이 아니라 자본 그것으로서—즉 화폐자본으로서—이자를 낳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더 심한 왜곡이 나타난다. 이자는 기능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착취하는 이윤 또는 잉여가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지금 이자가 자본의 고유한 과실이며 본원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윤은 기업가이득의 형태로 재생산과정의 단순한 부속품·부산물로 나타난다. 이리하여 자본의 물신적 형태와 자본물신의 관념이 여기에서 완성되고 있다. (p. 500)

61. M—M'에서 우리는 자본의 무개념적인 형태, 생산관계를 최고도로 전도시키고 사물화하는 것, 자본 자신의 재생산과정에 선행하는 자본의 단순한 형태인 이자낳는 형태를 보게 된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자본을 신비화하는 것은, 화폐 또는 상품이 재생산과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능력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자본을 가치와 가치창조의 독립적인 원천이라고 설명하려는 속류경제학에게 이 형태는 물론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왜냐하면 이 형태에서는 이윤의 원천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결과가 과정 그것에서 분리되어 자립적인 존재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p. 500)

62. 이자낳는 자본에서, 그리고 특히 그것의 직접적 형태인 이자낳는 화폐자본에서 자본은 자기의 순수한 물신형태인 M—M'을 주체로서, 판매할 수 있는 사물로서 얻고 있다. 첫째로, 자본이 끊임없이 화폐—이 화폐라는 형태에서는 자본의 모든 특수한 속성들이 사라져 버리고, 자본의 실물적인 요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화폐형태에서는 서로 다른 사용가치로서 상품들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며, 따라서 [이런 상품들과 그 생산조건들로 구성되는] 산업자본들 사이의 구별도 사라진다. 화폐는 가치—그리고 여기에서는 자본—가 자립적인 교환가치로 존재하는 형태다. 자본의 재생산과정에서 화폐형태는 일시적인 국면이며 단순한 통과국면이다. 이와는 반대로, 화폐시장에서 자본은 항상 이 화폐형태로 존재한다. 둘째로,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도 여기에서는 화폐형태며, 자본 그것의 속성으로 나타난다. 나무들의 성장이 나무의 속성인 것처럼, 화폐를 낳는 것이 화폐자본의 형태로 있는 자본의 속성인 것처럼 보인다. (p. 501)

63. 화폐가 대부분자마자 또는 재생산과정에 투하되자마자, 화폐가 잠을 자든 안자든 집에 있든 여행을 하든 낮이든 밤이든, 화폐에는 이자가 생긴다. 이리하여 이자낳는 화폐자본(그런데 모든 자본은 그것의 가치표현에서 보면 화폐자본이며, 또한 모든 자본은 지금 화폐자본의 표현으로 여겨지고 있다)은 화폐퇴장자의 가장 경건한 소망을 실현시키고 있다. (pp. 501-2)

64. 자본은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며 재생산 중에 자기를 증식시키는 가치이고, 자기의 고유한 속성에 의해 영원히 존속하고 증대하는 가치라는 관념은 프라이스의 해당무제한 착상을 낳았는데, 윌리엄 피트는 이 착상을 진지하게 믿어 국채상각기금 sinking fund에 관한 그의 법률에서 재정운영의 지주로 삼았다. … “예수가 탄생한 해에 6%의 복리로 대부된 1실링은…태양계 전체(토성 궤도의 지름과 동등한 지름을 가진 공으로 가정한다)가 포용할 수 있는 것 [순금] 보다 더 큰 금액으로 증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결코 재정난에 빠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는 최소의 저축으로 최대의 부채를, 국가의 이해관계가 요구하는 짧은 기간에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화폐를 복리로 증식시키기 위해 단리로 차입하면 된다는 의미. 각주 80 참조.)) … 그는 자본을—재생산과 노동의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스스로 움직이는 자동기관으로, 스스로 증가하는 단순한 숫자로 여겼기 때문에 $s=c(1+i)^n$ 이라는 공식에서 자본의 성장법칙을 발견하였다고 망상할 수 있었다. (pp. 503-5)

65. 프라이스 박사의 관념이 근대경제학에서 얼마나 널리 무의식중에 수용되고 있는가는 『이코노미스트』(1851년 7월 19일자)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자본이, 저축된 자본의 각 부분에 대한 복리에 의해 모든 것을 삼켜버릴 정도로 증가함으로써, 수입의 원천인 세계의 모든 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본의 이자가 되어 버렸다…지금 모든 지대는 이전에 토지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자의 지불이다.” 이자라는 자본의 속성에서 생산될 수 있는 모든 부는 자본에 속하며, 자본이 지금까지 수취한 모든 것은 자본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식욕에 대한 하나의 할부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류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잉여노동은 자본 자체의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자본에 속한다는 것이다. 자본은 분명히 몰록Moloch [사람의 목숨을 희생으로 요구하는 신]이다. (pp. 505-6)

66. 자본의 축적과정은, 이윤(잉여가치) 중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부분—즉 새로운 잉여노동의 흡수에 기능하는 부분—을 이자라고 부를 수 있는 한에서만 복리의 축적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 모든 우연적인 교란을 무시하더라도, 기존 자본의 대부분은 재생산과정의 진행에서 끊임없이 크든 적든 가치가 감소한다. 왜냐하면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의 생산에 처음 든 노동시간이 아니라 그것의 재생산에 드는 노동시간이며, 이 후자는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발달에 따라 끊임없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생산성의 더 높은 발달단계에서 모든 자본은 오랜 자본축적과정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비교적 짧은 재생산기간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2. 제3권 제3편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이윤율은 자본축적의 증대와 이것에 대응하는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증대—이것은 불변자본 부분에 대한 가변자본 부분의 상대적 감소의 진전에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에 따라 저하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이윤율을 낳기 위해서는, 1명의 노동자에 의해 처리되는 불변자본이 10배가

된다면 잉여노동시간도 10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리하여 얼마 안 가서는 노동시간 전체—심지어 하루 24시간 전체—가 자본에 의해 취득되더라도 동일한 이윤율의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윤율은 저하하지 않는다는 관념이 프라이스의 기하급수적 성장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복리에 의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자본'이라는 일반적인 사고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pp. 507-8)

67. 잉여가치와 잉여노동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자본축적에 하나의 질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 한계는 **총노동일**, 동시에 착취할 수 있는 노동일 수를 제한하는 생산력과 인구의 그때그때의 성장수준이다. 이와는 반대로 잉여가치가 이자라는 무개념적인 형태로 파악된다면, 그 한계는 오직 양적인 것이며 모든 망상이 가능하게 된다. (p. 508)

68. 이자 낳는 자본에서는 자본물신의 관념이 완성되고 있다. 이 관념에 따르면, 축적된 노동생산물—더욱이 화폐형태로 고정되어 있는—은 내재적인 신비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자동기관으로서 잉여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 축적된 노동생산물은 ... 모든 시대의 세계 전체의 부를 정당하게 자기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자기의 이자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이 관념에서 과거노동의 생산물[그리고 과거노동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현재 또는 미래의 살아있는 잉여노동의 일부를 잉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노동의 생산물의 가치가 유지되고 또한 재생산되는 것은 사실상 그 생산물이 살아있는 노동과 접촉하는 것의 결과에 불과하며, 그리고 과거노동의 생산물이 살아있는 잉여노동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본관계—과거노동이 독립적이고 우세한 것으로서 살아있는 노동과 대립하는 특수한 사회관계—가 지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p. 509)